

도전에 직면한 일본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모델

중국에 진출해있는 일본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가운데, 인재활용이나 개발 등의 면에서 현지화 추진 등 새로운 대 중국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부심하고 있음

□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일본기업들의 새로운 도전

- 중국내 인건비 상승, 로컬 기업의 대두, 젊은 종업원 층의 권리의식 제고 등 세계 제 2위 경제대국으로서 성장한 중국이 사업 환경 측면에서도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음
- 거대시장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, 중국에서의 사업 확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음
- 저렴한 노동력으로 가전 등 많은 제품의 전 세계 공급거점이었던 중국이 부품이나 설비를 수입하여 낮은 비용으로 조립하여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공장에서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음
- 그 원인은 일손 부족과 이에 따른 임금상승임. 일본경제신문사가 실시한 ‘중국진출 일본기업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’에 의하면, 장래 중국사업의 리스크를 인건비 상승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58.8%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
- 최저 임금은 광둥성의 심천시로 월 1500위안(19000엔)으로 정부가 매년 13% 이상 인상할 방침

-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하면, 중국의 임금수준은 2015년경에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

□ 중국진출 일본기업에 관한 주요 조사결과

- 일본경제신문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, 인건비 상승이 일본기업들이 중국 사업에서의 최대 수익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
- 1년 이상 지속된 금융긴축으로 중국의 경기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, 2011년도에 전년도 대비 두 자리대의 임금 상승율을 기록한 기업이 80%에 이르고, 중국사업의 수익전망이 10%이상 감소한 기업이 약 20%에 달함
- 2011년도 이익이 10%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30%를 넘고 있으나, 전회 조사의 50%에 비하면 크게 감소
- 위안화 가치의 상승 등으로 수출거점으로서의 매력에 감소되고 있음

□ 지진 영향은 없어

- 최근 임금인상 동향을 보면, 전년도 대비 두 자리대의 임금상승을 보인 기업은 2010년도 51%에서 2011년도에는 77%로 확대
- 2012년도 임금상승률 전망치는 66%로 인건비 상승이 수익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
- 작년 중국정부가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기업에게 사회보험가입제도 실시한 것도 요인임

- 응답기업의 59%가 ‘인건비 상승’을 중국사업의 최대 리스크이었고, 두 번째 요인인 ‘중국경제의 성장감속’의 응답비율 35%
- 동일본 대지진도 중국 사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. 일본으로부터의 소재나 부품 및 완제품 조달이 어려워 조사대상 기업들의 52%가 중국에서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응답
 - ‘일본 국내에서의 조달처 다양화(29사)’ 및 ‘중국에서의 현지 조달 확대(27사)’ 등 서플라이체인의 변화로 향후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한 대비 움직임도 강화
- 지진 이후, 일본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, 공동화 우려가 한층 강해졌으나,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으로의 이전과 지진과의 관계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80%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
 - 지진을 계기로 중국에서의 설비투자를 변경한 기업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

□ 정치적 변화에 주시

- 금년 가을 예정인 공산당 지도부 세대교체 후 사업 환경 변화를 주시하는 움직임도 주목됨
 - 지도부 교체로 사업 환경이나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있거나,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기업들의 응답비율이 40%
 - 내수부양책 확대(19사),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장려책 확대(19사) 등 자사의 사업 확대에 이어지는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음
- 중국경제 전망에 대해서는, 2012년 GDP성장율이 8%~9%를 예상한 응답비율이 53%로 가장 많았고, 7%~8%로 응답한 기업은 38%

- 경기부양효과가 있는 금융완화의 조기실시를 예상하는 응답비율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

□ 중국시장의 거대성은 글로벌전략의 요체

-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중국시장의 거대성이 글로벌전략의 요체임에는 변함이 없고, 인재활용에서 중국인 간부 채용 등 현지화를 추진, 시장개척을 서두르는 일본기업들이 부상하고 있음

□ 중국인 간부 채용

- 중국 현지법인에서 중국인 간부사원의 채용 비율에 관한 응답을 보면, 최상위 포스트가 사장 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이 30%를 넘음
- 부장 이상까지 확대하면 90%가까이가 중국인을 활용하고 있음
- 채용과 육성 측면에서는 일본에서의 연수가 88%로 가장 많고 일본 본사에서 채용, 주재원으로 중국현지법인에 파견하는 기업들도 50%를 넘음

□ 중국전용 모델 개발에 부심

- 과거 중국기업들이 구식 설비를 가지고 생산하던 시대에는 일본 기업들의 우위성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, 지금은 웬만한 중국기업들도 최신 설비를 도입,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
- 의류 분야에서는 중국보다도 인건비가 싼 국가로의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들도 있으나, 종업원의 숙련도나 거대시장의 입지성 등과 같은 이점을 감안하면,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수는 없고 생산 합리화에서 해법을 찾고 있음

- 이에 일본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재개발로서 현지 니즈에 맞추기 위해 개발을 현지화 하는 것임
- 용접기기 관련 대기업인 미야치테크노의 상해공장에서, 충전기 제조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용접기의 중국전용 모델 생산을 작년말 개시. 중국인 4명의 중국인을 포함한 기술자팀이 개발
- 광원에 사용하는 결정 등은 현지조달, 제품가격은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의 반값. 저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면 문제가 없다는 중국 기업들에게 판매
- 한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중국의 니즈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
- 플랜트 배관 등의 접속부에 액체 유출을 방지하는 고무패킹을 생산하는 대기업인 일본발카공업 사장은 “최근 일본에서 개발한 제품이 반드시 중국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”
- 중국의 배관은 접속면이 일본과 같이 미끄럽지 않아 일본의 패킹으로는 액체가 흘러나올지 모르는 점을 지적, 현지 개발의 필요성을 통감한다고 함
- 앞으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개발을 중국에 이전하는 움직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세계 공장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5.3/5.4)